



얼

굴

산 좋고, 물 좋고, 환경 좋은 곳—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서슴치 않고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곳이 충청북도이다. 그만큼 자연 조건이 좋아 사람까지도 좋은 충청북도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84년도 방역사업성적에서도 당당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단연 기염을 토한 忠北이기도 하다.

이런 유래인지는 몰라도 충북은 법정전염병이 적어서 도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道民 기질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기자는 지난달 5월중순 속리산 맑은 줄기의 絶景에 취하면서 당도한 곳이 충북 도청소재지인 淸州였다.

더구나 충북도민의 보건문제 총책임자인 吳炳夏 보사국장의 얼굴을 대하니 그의 따스한 인간성에 기자의 마음마저 누그러진다.

자연이 유순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유순해지기 마련이리라—

중후한 외모와 묵직한 톤으로 吳국장은 보건사회의 總帥답게 그의 소신을 이

충청북도 보건사회국 국장 吳炳夏씨

렇게 털어 놓는다.

『우리도는 면적이 7천 4백30km²로서 전국토의 7.5%, 인구수는 1백42만명으로서 전국의 3.5%, 가구수는 30만 7천戶, 행정구역으로는 3市10郡102邑面, 3출장소, 2천 5백36개소의 行政里洞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작은도에 속하지만 그러나 알 찬 內實을 다지기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지요』.

과거 중앙행정부서에 계실때에도 기획이나 예산을 다루는데 “베테랑”으로서 그의 솜씨를 발휘해왔다는 吳국장은 보사국장으로서도 그의 숨은 솜씨를 발휘하여 보사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同行한 鄭淳豹 사무국장은 기자에게 귀뜸해 준다.

—충청북도 보사행정의 자랑거리라던가 특히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전염병 방역대책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찬 결실을 거두어 하기방역사업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만전을 기해서 전염병없는 忠北道로서 면모를 과시할 생각입니다.

세부방침을 설명해 드린다면 첫째, 하절기 지방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작오입니다. 모든 행정을 그 방면에 주력하여 일할 생각이지요.

둘째, 음료수 소독및 관리철저입니다. 물은 꼭 끓여서 먹도록하고 더러운 물은 먹지 않도록 계몽하고 있지요.

셋째, 도민들의 자율방역 체계의 강화입니다. 도민들에게 자기몸의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자체방역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넷째, 예방접종 철저와 보건자 색출의 내실화입니다. 도민전부에게 예방주사를 맞히고 보건자를 가려내어 전염원을 차단하여 철저한 내실화를 기하자는것입니다.

다섯째, 일본뇌염이나 간염의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해서 지금은 별로 유행하지않는 장티프스, 콜레라등의 집중을 줄일생각입니다.

기타 여섯째로는 소독을 의무적으로해서 소독사업을 정착화 시키자는것입니다.

논리정연한 吳炳夏국장의 말씀에서 역시 기획업무의 중진임을 기자는 다시금 실감할 수 있어 좋았다.

吳국장은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 정보망의 활성화, 방역 취약지 집중소독 역학 조사활동의 전문화, 소독업 허가업소 지도감독의 철저, 보건계몽의 확대 실시등을 손꼽는다.

기자는 속으로 이런 치밀한 계획하에 방역사업을 펼친다면 충북도가 또한번 전염병없는 道로서 면목을 세우겠구나 하고 생각해 본다.

—健協이 펼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부지부장님의 입장으로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健協의 발족이 몇년 되지 않았지만 長足の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現代病으로 고민하는 시대에 미리 병을 早期發見 早期치료토록하는 사업이야 말로 우리들 건강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충북도 보건사업의 책임자로서 느끼는 것은 어찌하면 좀더 健協이나 寄協을 도와서 活性化를 시키나 하는것이 늘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사실말이지만 전체 국민으로 볼 때 혈압계나 심전도 한번 검사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오직 많겠습니까? 이런면에서 볼 때 건협의 사업 형태는 진정으로 국민보건으로 보아서도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봐요. 산간 오지까지 가서 의료혜택을 준다는 것은 예전에는 미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사이에 높아지는 억양은 얼마나 健協이 하는일에 관심이 많으신가를 단적으로 표시하는것 같아 기자는 저절로 머리가 숙으려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道는 健協에다 금년에 우선 검진차량 1대를 보조해 주어 구입토록 했지요 비록 1700만원밖에 못내 드렸지만 그 의의는 크게 느끼고 있

사진 : 기자 및 기협중
북지부 간부와 대담하
는 吳 보사국장 (中央)



읍니다.』

他市道에 비해 검진버스 구입은 늦었지만 그만큼 더 뛰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면서 그간의 도비보조금 책정에 애로점도 말씀하신다.

『이곳에 와 있는 鄭국장의 노고도 칭찬할만 합니다. 차량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좀 더 보조를 해주어야지 않겠느냐는 의무감도 생기더군요. 하하……』

너털웃음을 웃으시는 吳炳夏국장의 모습에서 忠北의 건강관리는 정말 잘 되겠구나 하고 기자는 느끼고 있었다.

——기생충구제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충북은 도세는 약하지만 보건사업분야에서만 他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만 보더라도 학생 3.6%, 일반주민 및 후생시설 수용자등이 3.7%로서 단연 감염율이 저하되어 있는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지요. 그러나 완전박멸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도 일반 주민 검진 4천 7백만원을 도비로 보조해서 기생충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同行한 鄭국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귀뜸해 준다.

『이번에 副知事님과 吳국장님이 힘써 주셔서 行政전화까지 가설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관한 전반 사항을 행정전화로 연결, 사업의 신속화를 기하기로 했지요.』

실로 놀라운 협조체제였다. 名將밑에 弱卒이 없듯이 지부장님, 부지부장님, 사무국장, 과장등이 일체감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질때 못할것이 무엇인가하는 교훈을 충북도에서 비로소 배운것 같아 마음 호뭇함을 느낄수 있었다.

◎…吳炳夏국장은 道기획담당관, 단양군수, 진천군수를 거쳐 85년 3월 현 보사국장에 취임. 부인 金紀子여사와의 사이에 3男을 두고 있다.

취미는 정구가 가히 프로급으로 손꼽히고 있다.